

2025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표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성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성경 전체의 주제를 보여 준다.
'생명'과 '죽음'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를 관통하며
대조를 이루는 두 노선을 형성하며, 사람이 하나님과 사탄,
즉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삼각관계에 있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의 유기적인 목표가 성취되도록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의 유기적인 목표는 지방 교회들 안에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는 것이며,
이러한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화평의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표현과 그분의 승리의 전시를 위해
사탄을 우리의 발아래 짓밟히게 하신다.

합당한 침례를 체험한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계속하여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자란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은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에 관한 것이다.
이 영은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완전히 똑같이 만드실 것이다.

2025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 성경의 핵심

메시지 1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에 나오는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

성경: 롬 5:10, 12, 14, 17-18, 21, 6:4, 9, 16, 21-23, 7:5, 10, 13, 24, 8:2, 6, 10-11, 38

- (롬 5:10)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 (롬 5:12)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 (롬 5:14)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위법한 것과 같은 모양의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 위에도 죽음이 왕 노릇을 하였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예표입니다.
- (롬 5:17-18)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18) 그러므로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같이,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었습니다.
- (롬 5: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롬 6:9)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 (롬 6:16) 여러분이 자신을 노예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이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순종의 노예가 되어 의에 이르게 됩니다.
- (롬 6:21-23)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는데, 이것은 그런 일들의 결말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22)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노예가 되었고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23)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 (롬 7:5) 우리가 육체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을 통해 활동하는 죄들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 (롬 7:10)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서 오하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롬 7:13) 그러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이 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죄가 그 선한 것을 통하여 내 안에 죽음을 가져옴으로 죄로 드러나게 되었고, 계명을 통하여 죄가 아주 죄악이 가득한 것이 되었습니다.
- (롬 7:24)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내겠습니까?
- (롬 8: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 (롬 8:10-1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은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 (롬 8: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들이나

I.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성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성경 전체의 주제를 보여 준다.

A. '생명'과 '죽음'이라는 두 핵심 단어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다. 생명(롬 5:10, 17-18, 21, 6:4, 22-23, 7:10, 8:2, 6, 10-11, 38)과 죽음(5:12, 14, 17, 21, 6:9, 16, 21, 23, 7:5, 10, 13, 24, 8:2, 6, 10-11, 38)은 5장부터 8장까지를 관통하며 대조를 이루는 두 노선, 즉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을 형성하며, 사람이 하나님과 사탄, 즉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삼각관계에 있는 것을 보여 준다.

(롬 5:10)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롬 5:17-18)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18) 그러므로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같이,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었습니다.

(롬 5: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롬 6:22-23)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노예가 되었고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23)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롬 7:10)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서 오려면 죽음을 이르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롬 8: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롬 8:10-1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롬 8: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들이나

(롬 5:12)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롬 5:14)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위법한 것과 같은 모양의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 위에도 죽음이 왕 노릇을 하였습니 다. 아담은 오실 분의 예표입니다.

(롬 6:9)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롬 6:16) 여러분이 자신을 노예로 드러 누구에게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이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 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순종의 노예가 되어 의에 이르게 됩니 다.

(롬 6:21)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는데, 이것은 그런 일들의 결말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롬 7:5) 우리가 육체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을 통해 활동하는 죄들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롬 7:13) 그러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이 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죄가 그 선한 것 을 통하여 내 안에 죽음을 가져옴으로 죄로 드러나게 되었고, 계명을 통하여 죄가 아주 죄악이 가득한 것이 되었습니다.

(롬 7:24)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내겠습니까?

B. 생명나무와 지식나무(죽음나무)에서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이 나오는데, 이 두 노선은 성경 전체를 관 통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끝난다. 생명은 생명나무(창 2:9)로 시작하여, 생명수 및 생명나무(계 22:1-2)와 생명의 빛(21:23, 22:5)과 생명의 영광(21:10-11, 23)을 지닌 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끝난다. 죽음은 지식 나무로 시작하여(창 2:17) 불 못으로 끝난다(계 20:10, 14).

(창 2: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였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 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계 22:1-2)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

- 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2)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 (계 21:23)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
- (계 22:5) 더 이상 밤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 (계 21:10-11)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 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 (계 21:23)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
- (창 2:17)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 (계 20:10) 그들을 미혹시키던 마귀는 불과 유향의 못에 던져졌는데,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신언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 (계 20:14) 죽음과 음부도 불 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죽음, 곧 불 못입니다.

C. 생명나무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창 2:9, 16, 계 2:7). 교회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누릴수록 그 내용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다.

- (창 2: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였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 (창 2:16)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D.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다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잃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상실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등잔대가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이다 — 계 2:4-7.

- (계 2:4-7)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5)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6) 그러나 너에게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곧 네가 니콜라당의 일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E.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주 예수님을 으뜸으로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모든 것이 되시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이겼음을 의미한다 — 골 1:18하, 요 14:21, 23, 시 90:1, 91:1, 빌 3:13-14.

- (골 1:18하)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요 14:21) 나의 계명들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 (요 14: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 (시 90:1) 오 주님! 주님은 대대로 저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 (시 91:1)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한 곳에 거주하는 이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거하리라.
- (빌 3:13-14)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14)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쫓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

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F.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알파벳 엘(L)로 시작하는 네 가지 핵심 단어인 사랑(love), 생명(life), 빛(light), 등잔대(lampstand)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방면과 모든 일에서 주 예수님께 으뜸의 위치를 드러서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누릴 것이며, 이 생명은 즉시 생명의 빛이 된다(요 8:12).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빛날 것이고 단체적으로 등잔대로서 빛날 것이다(계 2:1-7).

(요 8:12)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계 2:1-7)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등잔대 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2) 내가 너의 일과 수고와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이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실은 사도가 아닌 이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밝혀낸 것도 안다. (3) 또한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있으며, 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어 내었고, 지치지 않았다는 것도 안다. (4)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5)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내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6) 그러나 너에게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곧 내가 니골라당의 일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G. 악인의 악한 상태는 주님을 먹고 누리려고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이다(비교 사 55:1-2, 6-7, 57:20-21). 그들은 많은 일을 하지만,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취하며,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맛보며, 주님을 누리려고 나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렘 2:13).

(사 55:1-2) “자, 목마른 모든 사람들과, 물들로 나아오너라. / 너 돈 없는 이도 나아오너라. / 와서 사 먹되 / 정녕, 와서 돈 없이 값없이 / 포도주와 젖을 사라. (2)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에 돈을 들이고 /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 내 말을 잘 듣고 좋은 것을 먹어 / 너희 혼이 기쁨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여라.

(사 55:6-7) 찾을 수 있을 때에 여호와를 찾으며 /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7) 악인이 자기 길을, / 악을 행하는 이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 그가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라. 그분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임이라.

(사 57:20-21) 그러나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 같아서 / 가만있지 못하니 / 그 물결이 개흙과 진흙만 밀어 올린다. (21)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

(렘 2: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 나를 저버렸고 / 자기들을 위해 저수조들을 팠는데 / 그것들은 물을 담아 둘 수 없는 / 새는 저수조들이었다.

II. 오늘날 믿는 이는 에덴동산의 축소판이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로서 믿는 이의 영 안에 계시고, 사탄은 지식나무로서 믿는 이의 육체 안에 있으며, 믿는 이의 생각은 그 사이에 있다. 우리는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육체 안에 있다.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제삼의 장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어야 한다 — 롬 8:6.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A. 사람의 몸은 본래 순수했지만,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그 자신을 사람 안에 주입하여 사람의 몸을 육체가 되게 했다 — 창 3:6, 롬 7:18상.

(창 3:6)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기에 좋고 보기에 즐거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먹었다.

(롬 7:18상)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1. 우리의 몸은 ‘죄의 몸’(롬 6:6)이자 ‘이 죽음의 몸’(7:24)이다. 죄의 몸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데에는 매

우 활동적이고 힘이 넘치지만, 이 죽음의 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데에는 약하고 능력이 없다(7:18).

(롬 6:6)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롬 7:24)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내겠습니까?

(롬 7:18)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2. 우리가 여전히 살아 있는 한,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 죄와 죽음의 몸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 비교 롬 8:23.

(롬 8:23)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육체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집회 장소'이자 복합체이다. 육체는 전혀 기망이 없으며 결코 개선될 수 없다 — 롬 7:17-18, 21, 비교 요 17:15.

(롬 7:17-18)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18)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롬 7: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 17:15)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B.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위하여 그분의 지혜와 주권으로 우리의 죄악되고 추악한 육체를 사용하시어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아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신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리심으로 그분의 건축물을 위해 그 영을 더욱더 얻게 된다 — 골 2:19, 스펀 4:6.

(골 2: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리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스 4:6)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1. 법리적으로 말해서 사탄과 우리의 육체는 모두 십자가에서 한 번 만에 영원히 유죄판결 받았지만(롬 8:3, 요 3:14, 히 2:14, 고후 5:21), 하나님은 육체를 우리에게 남겨 두시어 육체가 우리를 도와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돌아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시고,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도록 하신다(빌 3:3).

(롬 8:3)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요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합니다.

(히 2:14)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고후 5: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빌 3:3)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2. 죄악되고 추악한 육체가 주는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주님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 것

이고,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시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 롬 7:24-25, 8:2, 6, 13.

(롬 7:24-25)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내겠습니까?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롬 8: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롬 8:13)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3. 우리의 목표는 거룩함이나 영성이나 승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시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다. 종종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주님께 더 많이 열리며, 더욱더 기꺼이 주님께 돌아켜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시도록 허락해 드린다 — 롬 8:28-29, 엡 5:27.

(롬 8:28-29)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엡 5:27)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4. 우리가 주님을 추구한다면, 육체라는 죄악된 혼합물까지도 주님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실패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영으로 돌아키며,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영을 더 많이 얻는다 — 비교 출 23:23, 29-30, 사 2:21-3:4.

(출 23:23) 나의 천사가 너보다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게로 인도할 것이고, 나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출 23:29-30)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들이 불어나 너를 해칠 것을 우려해, 그들을 네 앞에서 일 년 안에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30) 나는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사 2:21-3:4) 이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 놓은 민족들 가운데 어떤 민족도 이들 앞에서 더 이상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22)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조상이 여호와와 길을 지켰던 것처럼, 여호와와 길을 지켜 그 길을 따라 걷는지 그러지 않는지를 그 민족들을 통하여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다.” (23) 그래서 여호와와 이 민족들을 속히 쫓아내지 않으시고 남겨 두셨으며,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3:1) 여호와와 이스라엘(곧 가나안에서 일어난 그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들 모두)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몇몇 민족을 남겨 두셨는데, (2) 이것은 다만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가 전쟁을 알도록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다. (3) 그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 온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그리고 바알헤르몬산에서 하맛 어귀까지의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다. (4) 이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곧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이스라엘이 청종하는지 그러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남겨 두신 이들이다.

5. 우리의 고난과 패배와 실패와 실망은 우리가 육체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육체는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돌아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우리를 영 안으로 밀어 넣으며, 우리가 필사적으로 영 안에 들어가게 하고, 우리가 깨어 영 안에 머물게 하는 데에만 유익하다 — 마 26:41, 엡 6:17-18.

(마 26:41)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영은 원하지만, 육체는 약합니다.”라고 하시고,

(엡 6:17-18)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여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6. 주님은 우리의 승리나 실패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주님은 오직 한 가지, 곧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어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얻었는지에만 관심이 있으시다 — 빌 3:8, 고후 3:17-18, 롬 8:6.

(빌 3: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고후 3:17-18)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III.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 안에 있고,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로마서 7장에서는 육체 안에 있고, 로마서 8장에서는 영(spirit) 안에 있다. 5장의 아담은 7장의 육체 안에서 체험되고, 6장의 그리스도는 8장의 영(spirit) 안에서 체험된다.

A.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아담에게서 나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전이를 갖는데, 이러한 전이는 하나의 사실이고 위치적인 것이다 — 롬 6:3-8.

(롬 6:3-8)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6)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7)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게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8)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도 믿습니다.

1. 아담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죄인들로 조성하는 죄를 물려받았다(롬 5:12상, 19상). 우리는 죽음을 물려받았는데, 이 죽음은 한 면으로는 우리를 약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면으로는 우리에게 왕 노릇 한다(롬 5:12하, 14상, 17상). 우리는 율법 아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유죄판결을 물려받았다(롬 5:16중).

(롬 5:12상)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롬 5:19상)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들로 조성된 것같이,

(롬 5:12하)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롬 5:14상)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위법한 것과 같은 모양의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 위에도 죽음이 왕 노릇을 하였습니다.

(롬 5:17상)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롬 5:16중) 한 번의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 아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의와 생명과 의롭게 됨을 선물로 받았고, 결국 생명 안에서 우리는 은혜로 모든 것을 왕으로서 다스린다 — 롬 5:17하, 18하, 21.

(롬 5:17하)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롬 5:18하)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었습니다.

(롬 5: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B.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통해(롬 6:6, 갈 2:20) (실지적이고 체험적인 아담인) 육체에서 나와, 생명의 영의 법이신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롬

8:2, 16상, 고전 6:17) (실지적이고 체험적인 그리스도이신) 그 영 안으로 옮겨지는 실지적이고 체험적인 전이를 갖는다.

(롬 6:6)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롬 8: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롬 8:16상)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C.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요 14:6상, 11:25, 요일 1:2). 그분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요 10:10하). 그분은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을 죽으시고 생명을 분배하는 부활(요 12:24) 안으로 들어가시어 생명의 영의 법(롬 8:2)이신 생명 주시는 영(고전 15:45하)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에 삼켜져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롬 8:10, 6, 11, 고후 5:4, 요일 5:16, 요 6:63, 행 5:20).

(요 14:6상)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재요 생명이니,

(요 11: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요일 1:2)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요 10:10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롬 8: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전 15:45하)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롬 8: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롬 8: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고후 5:4) 또한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집을 지고 탄식하는 것은 벗어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옷 입고 싶어서인데,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일 5:16상)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형제, 곧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요 6: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행 5:20) “여러분은 가십시오. 그리고 성전 안에 서시어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십시오.”라고 하니,

IV. 생명의 노선에 머물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해야 한다. 아래에 있는 ‘리 형제님의 중요한 교통’을 참고하라.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함 — 리 형제님의 중요한 교통

“1943년 5월에 나는 ... 아주 심한 폐결핵에 걸렸다. ... 이 년 반을 병중에 지내면서 나는 생명나무를 보았다. 그 이 년 반 동안 나는 주님의 회복과 그분의 일 안에서 결핍된 것이 바로 생명임을 보았다. 온갖 종류

의 어려움은 생명의 결핍에서 온다. 이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극도로 뉘우치게 되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나의 많은 죄를 시인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그분께 다루심을 받았다. ... 당시에 이 생명나무에 대한 메시지는 난징에서 많은 이들을 구원했고 많은 이들을 해방했다. 그들은 모두 우리 가운데 있던 형제자매들이었다. 그들은 사 년 전에 상하이 교회의 소요로 인해 여러 해 동안 낙담하고 뒤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그들의 영을 자유롭게 했고, 이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 주님께 감사드린다. 생명나무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 상하이 교회가 치료를 받았다. ... 생명나무에 대한 메시지는 상하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기초를 놓아 주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1년, 2권, 주님의 회복의 역사와 계시, 8장, 170, 174, 176, 180쪽)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가려면 관념을 철저히 전환해야 한다. ...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실제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제하는 이상을 보아야 한다. ... 사십 세에 이르렀을 때에야 나는 주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이 길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십여 년 동안 들인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이 헛되이 소모된 것에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그 많은 기도와 성경 연구, 그리고 그때 읽었던 영적 서적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이전에 일하는 방식이 틀렸을 뿐 아니라 영적인 추구의 길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 나 자신이 그런 잘못된 길을 가서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나와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것을 원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는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정중하게 말하거니와, 여러분은 그런 잘못된 길을 가지 말고 과거의 여러분의 추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의 관념이 반드시 철저히 바뀌어야 한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는 통제하는 이상을 가져야 한다.”(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이상, 5장, 91-92쪽)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결과 —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림

성경: 롬 5:1-11

(롬 5:1-1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립니다. (2) 우리는 또한 그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3)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자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4) 인내는 단련을, 단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5)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6)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그리스도는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7)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람이 흑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8)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9)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10)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11)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I.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의 표준에 따라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판결이다. 믿는 이들의 의는 그들 스스로 소유한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한 인격 곧 살아 계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A.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행 10:43),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의의 겹옷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입히심으로(사 61:10, 눅 15:22, 렘 23:6, 슄 3:4)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롬 3:24, 26).

(행 10:43) 모든 신언자도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그분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사 61:10) 내가 여호와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 내 혼이 내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 그분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 의의 겹옷을 돌려 주신 까닭이니 / 나는 마치 제사장의 머리 장식을 한 신랑 같고 / 제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 같아라.

(눅 15:22)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겹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렘 23:6) 그의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주하며 / 그가 ‘여호와 우리의 의’라 불리니 / 이것이 그의 이름이다.

(스 3:4)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러시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서 네 죄악을 없애 버리고,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겠다.”

(롬 3:2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롬 3:26) 지금 이때에 그분의 의를 나타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B. 생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생명에 속한’ 것이다. 의롭게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이르고 그 표준과 일치되며, 그 결과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실 수 있다 — 롬 5:18.

(롬 5:18) 그러므로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같이,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었습니다.

II.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결과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

롬 5:1-11.

(롬 5:1-1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립니다. (2) 우리는 또한 그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3)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자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4) 인내는 단련을, 단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5)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6)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그리스도는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7)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람이 희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8)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9)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10)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11)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A.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결과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여섯 가지 놀라운 것, 곧 사랑(롬 5:5)과 은혜(2절)와 화평(1절)과 소망(2절)과 생명(10절)과 영광(2절)으로 구체화된다. 이 절들은 또한 우리의 누림을 위한 삼일 하나님, 곧 성령(롬 5:5)과 그리스도(6절)와 하나님(11절)을 계시한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립니다.

(롬 5:2) 우리는 또한 그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롬 5:5)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롬 5:6)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그리스도는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롬 5:10)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롬 5:11)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B.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죄인들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분의 원수들이나 우리를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롬 5:1, 10-11).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다'(롬 5:5).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립니다.

(롬 5:10-11)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11)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롬 5:5)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 비록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고 억압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스도 자신인 생명의 노선(요 14:6상) 안에 머물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사랑(요일 4:8, 16)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유 20-21).

(요 14:6상)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재요 생명이니,

(요일 4:8)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일 4: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유 20-21)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 우리가 불타는 사랑의 영을 가져 오늘날 교회의 하락을 이길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그 영이신 주님과와의 접촉 안에 머물기 위해 계속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세우는 것이다 — 딤후 1:6-7, 4:22.

(딤후 1:6-7)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의 안수를 통하여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7)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딤후 4: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C.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다’(롬 5:2).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은혜의 영역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린다’(롬 5:1).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립니다.

(롬 5:2) 우리는 또한 그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1.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하나님 안으로의 여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복음 7장에 따르면, 구원을 받도록 많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 죄 많은 여인(47-48절)에게 주 예수님은 “평안* 안으로 가십시오.”(원문 직역)라고 말씀하셨다(50절).

(* 영어 단어 ‘peace’는 문맥에 따라 ‘화평’과 ‘평안’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음 — 역자 주)

(눅 7:47-48)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많이 사랑 하였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48)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대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라고 하시자,

(눅 7:50)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2. 우리는 의롭게 됨의 문을 통과한 후에 평안의 길을 가야 한다(롬 3:17). 우리가 우리의 영에 관심하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우리의 영 안에서 행하고 삶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때, 우리의 생각은 평안이 되어 우리에게 안식과 해방과 밝음과 위로라는 내적 느낌을 준다(롬 8:6).

(롬 3:17) 그들은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한다.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 III. 은혜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누림과 기쁨을 위한 우리의 자랑과 즐거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갖는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을, 단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자랑하는 것이다’ — 롬 5:3-4, 11.

(롬 5:3-4)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자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4) 인내는 단련을, 단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롬 5:11)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 A. 환난은 사실상 은혜의 육체 되심이고 은혜의 달콤한 방문이다. 환난을 거절하는 것은 은혜, 곧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의 뒤통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은혜는 주로 환난의 모습으로 우리를 방문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상태,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선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고 그분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심으로, 우리가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과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이다
— 고후 12:7-9, 롬 8:28-29.

(고후 12:7-9) 또한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내가 너무 높아질까 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전달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를 쳐서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8) 나는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도록 해 달라고, 이 일을 두고 주님께 세 번 간청하였습니다. (9)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롬 8:28-29)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받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B.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을 낳는다. 단련은 시험받은 특성과 인정받은 가치이다(빌 2:19-22). 바울은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복음을 위임받게 되었다’(살전 2:4)고 말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검사하시고 시험하심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거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셨다.

(빌 2:19-22)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속히 여러분에게 보내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정을 알게 되어 나도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20) 나와 같은 혼이 되어 여러분의 사정을 진심으로 돌볼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나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21)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의 일만 관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은 관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2) 그러나 여러분은 디모데의 입증된 성품을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는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섬겼습니다.

(살전 2:4)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복음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1.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불, 곧 시험과 고난의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고 마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롭다’고 말한다. 제련되지 않은 금은 정결하게 하는 불로 태워질 때 모두가 쉽게 인정할 수 있는 품질을 얻게 된다 — 말 3:3.

(벧전 1:7)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고 마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로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말 3:3) 그가 은을 정련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로 앉아서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화하리니, 그들이 여호와에게 의의 희생 제물을 바칠 것이다.

2. 주님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여 불 같은 시련들을 통해 금 같은 믿음이신 그분을 얻기 원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금, 곧 신성한 본성을 가진 신성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께 참여하여 그분의 몸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금으로 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 순금 등잔대가 될 수 있다
— 계 3:18, 1:20, 21:18, 23, 벧후 1:4.

(계 3:18)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불에 제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

(계 1:20)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전달자이고,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이다.

(계 21:18)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 21:23)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

(벧후 1: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3.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성도들은 자신에게 어느 정도 분량의 생명과 빛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주님을 위해 일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처리지 않아서, 환난과 시험을 견딘 결과로 나온 인정된 자질인 단련이 부족하다. 이 자질은 섬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쁘고 행복하고 달콤하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한다.
4.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 제게 단련이라는 미덕이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단련을 낳는 환경을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들이지만 단련이 부족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히고 우리를 손상하며 성도들과 하나님의 가족도 곤란하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빛과 은사로 성도들을 돕지만, 단련이라는 인정된 자질이 부족하여 그들을 해한다 — 마 24:45-51.

(마 24:45-51)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46) 주인이 와서 노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노예는 복이 있습니다. (47)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48) 그러나 그 악한 노예가 마음속으로 ‘나의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라고 하며, (49) 동료 노예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50) 예기치 않은 날, 알아채지 못하는 시각에 그 노예의 주인이 와서, (51) 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C. 우리에게는 단련과 함께 소망이 있고(롬 5:4),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랑한다(2절).

(롬 5:4) 인내는 단련을, 단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롬 5:2) 우리는 또한 그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1.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고 평안 가운데 행하지만, 아직은 표현되신 하나님 자신인 영광 안에 완전히 있지 않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 냅니다.” — 고후 4:17.

(고후 4:17)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 냅니다.

2.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셨다. 여기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 — 벰전 5:10, 살전 2:12, 골 1:27, 빌 3:21.

(벰전 5:10)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살전 2:12) 그것은 그분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골 1:27)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빌 3:21)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3. 주님은 그분의 많은 아들들인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심으로 영광 안으로 이끌고 계시고(히 2:10-11),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한 단계의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의 영광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있다(고후 3:16-18, 4:6하).

(히 2:10-11)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11)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고후 3:16-18)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고후 4:6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D.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의 유기적인 목표가 성취되도록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의 유기적인 목표는 지방 교회들 안에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는 것이며, 이러한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화평의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표현과 그분의 승리의 전시를 위해 사탄을 우리의 발아래 짓밟히게 하신다 — 롬 5:10, 12:5, 16:1, 4-5, 16, 20.

(롬 5:10)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롬 12: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롬 16:1)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여집사인 우리의 자매 비비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롬 16:4-5)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5)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롬 16:16)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롬 16:20)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여러분의 발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모양

성경: 롬 6:3-5, 5:17, 갈 3:27

(롬 6:3-5)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갈 3: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I.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 롬 6:3.

(롬 6:3)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A. 침례는 하나의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 롬 6:3.

(롬 6:3)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B.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어 그분을 우리의 영역으로 삼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하나로 연결되기 위한 것이다.

C. 우리는 첫 사람인 아담의 영역 안에서 태어났지만(고전 15:45, 47), 침례를 통하여 둘째 사람(고전 15:47) 이신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옮겨졌다(1:30, 갈 3:27).

(고전 15: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전 15:47) 첫 사람은 땅에서 나왔으니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오셨습니다.

(고전 1: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갈 3: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D.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을 때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는다 — 롬 6:3.

(롬 6:3)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E.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과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분별시켰고, 우리의 타고난 생명, 옛 본성, 자아, 육체, 심지어 우리의 역사 전체를 끝냈다.

II.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롬 6:4.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A.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롬 6:6),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

(롬 6:6)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 B. 자연의 영역에서는 사람이 먼저 죽고 그다음에 장사된다. 그러나 바울의 말이 가리키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먼저 장사되고 그다음에 죽는다는 것이다.
- C. 우리는 직접 죽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
- D.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은 하나이다.
- E.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결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을 수 없다. 이것은 그분의 효능 있는 죽음의 요소가 오직 그분, 즉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 안에만 있기 때문이다 — 비교 요 5:29, 11:24-25, 행 1:22, 2:31.

(요 5:29) 선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악을 일삼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요 11:24-25) 마르다가 말씀드렸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행 1:22) 곧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어 하늘로 올려지시던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의 하나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행 2:31) 그는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음부에 버려지지도 않으셨고, 또한 그분의 육체가 썩지도 않았습디다.’

- F. 로마서 6장 4절에서 ‘아버지의 영광’은 신성이 나타난 것을 가리킨다.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G.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부활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 — 빌 3:10.

(빌 3: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 H. 부활은 장래의 상태일 뿐 아니라 현재의 과정이기도 하다.

- I.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영역 안에서 살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 롬 6:4, 5:17.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 J. 이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이 처리되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된다 — 롬 12:2, 8:29.

(롬 12: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받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롬 8: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III.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지켰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 롬 6:5.

(롬 6:5)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지켰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 A. ‘그분과 연결되어 지켰다면’은 유기적인 연결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연결 안에서 지라면 한쪽이 다른 한쪽

의 생명과 특성에 참여하게 된다 — 롬 6:5상.

(롬 6:5상)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B.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

C.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 이것이 접붙임이다 — 롬 11:24.

(롬 11:24) 그대가 원래의 야생올리브나무에서 잘라져 본성을 거슬러 참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다면, 원래의 가지들인 이 사람들 이야 자기 올리브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습니까!

D. 이러한 접붙임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배출시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기능들을 부활시키며, 우리의 기능들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기능들을 풍성하게 하며, 우리의 온 존재를 적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E.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이란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한 침례이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란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한 생명의 새로움이다.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F.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롬 6:5)는 장래의 객관적인 부활이 아닌 현재의 성장 과정을 가리킨다.

(롬 6:5)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G. 침례 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 이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부활 안으로 자라 가고 있다.

H. 그리스도의 죽음의 요소가 오직 그분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요소도 오직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 있다. 그분 자신이 부활이시다 — 요 11:25.

(요 11:25) 형제님들,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해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곧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I. 합당한 침례를 체험한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계속하여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자란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 롬 6:4.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IV.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 갈 3:27.

(갈 3: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A. 침례에는 네 방면이 있는데,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 받는 것(마 28:19)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갈 3:27)과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는 것(롬 6:3)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 받는 것(고전 12:13)이다.

(마 28:19)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갈 3: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롬 6:3)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고전 12: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B. 침례는 회개한 사람들의 옛 생명을 끝내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받아시킴으로써, 그들이 옛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 롬 8:2, 10.
 (롬 8: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롬 8: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C. 침례에는 두 방면, 곧 보이는 방면과 보이지 않는 방면이 있다.

1. 보이는 방면은 물에 의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방면은 성령에 의한 것이다 — 행 2:38, 41, 10:44-48.
 (행 2:38)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행 2:41)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약 삼천 명의 사람들이 더해졌다.
 (행 10:44-48)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45) 그러자 베드로와 동행했던 할례 받은 믿는 이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신 것을 보고 놀랐다. (46)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47)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는데, 물 침례 받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48)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였다.

2. 그 영에 의한 보이지 않는 방면이 없다면 물에 의한 보이는 방면은 공허하며, 물에 의한 보이는 방면이 없다면 그 영에 의한 보이지 않는 방면은 추상적이고 실질적이지 않게 된다. 따라서 둘 다 필요하다.

D.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이다 — 갈 3:27.

(갈 3: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 롬 8:10, 14, 갈 3:26, 4:7.
 (롬 8: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롬 8:14)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갈 3:26)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 4:7)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입니다.

2.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이다 — 갈 3:27.

(갈 3: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3.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누리다.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이 우리의 온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다 — 롬 12:2.

(롬 12: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4.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대해 말함으로 이 장을 끝맺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 갈 3:27.

(갈 3: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5. 바울이 침례에 관한 말로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만 3장에서 다루어진 것이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갈 3:27.

(갈 3: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6.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은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 갈 3:27.

(갈 3: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7.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고 계신다.

8. 한 면에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잠겼고, 다른 한 면에서는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9.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고, 우리의 옷 곧 우리의 덮개이신 그분을 입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간증할 수 있다 — 갈 3:27.

(갈 3: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4

새 남편

성경: 롬 7:2-6

(롬 7:2-6)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3)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릴 것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지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다. (4) 나의 형제님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5) 우리가 육체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을 통해 활동하는 죄들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6)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어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낚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깁니다.

I. 그리스도는 새 남편이시다 — 롬 7:2-6.

- A. 거듭난 이들로 믿는 이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그리스도가 그들의 남편이시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아내의 일부이다.
- B.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가 그들의 남편이시지만, 많은 이들이 그들의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II. 우리의 옛사람, 곧 옛 남편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 A. 로마서 7장 2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는 두 남편을 보여 준다.

(롬 7:2-4상)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3)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릴 것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지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다. (4상) 나의 형제님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 1. 첫 번째 남편인 옛 남편은 로마서 6장 6절에 언급된 옛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롬 6:6)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 2. 로마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에 언급된 두 번째 남편, 곧 새 남편은 그리스도이다.

(롬 7:2-4)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3)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릴 것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지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다. (4) 나의 형제님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 B. 옛 남편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우리는 옛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곧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인 새 남편에게 연결된다.
- C. 믿는 이들로써 우리에게서 두 가지 신분이 있다.
 - 1. 첫 번째는 타락한 옛사람이라는 우리의 옛 신분이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아내라는 본래의 위치를 떠나 하나님에게서 독립되어 남편과 머리로서 독단적인 위치를 취했다.
 - 2. 두 번째는 우리의 거듭난 새사람이라는 우리의 새 신분이다. 새사람은 본래의 합당한 위치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참된 아내로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머리로 삼는다 — 사 54:5, 고전 11:3.

(사 54:5) 너를 만든 이가 너의 남편 /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의 구속자 /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린다.

(고전 11:3)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이시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3.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옛 남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4. 이제 우리에게는 합당한 아내라는 새로운 신분만 있다. 합당한 신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고 더 이상 옛사람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즉, 더 이상 우리의 옛사람을 남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D. 율법은 옛 남편인 옛사람을 위한 것이자 옛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죽음은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 죽게 했다.

III.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남편,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결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롬 7:4상.

(롬 7:4상) 나의 형제님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A. 이러한 연결은 아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격과 이름과 생명과 존재와 유기적인 연결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 고후 11:2.

(고후 11:2)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B.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삼아야 한다 — 엡 5:23.

(엡 5:23)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

1.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삼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종결하고 모든 것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삼는 것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3.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시도록 해야 한다.
4. 우리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다. 옛사람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시다.

C.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만이 아니시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명이시다 — 골 3:4.

(골 3: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D. 어떤 사람이 삼일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고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는 또 다른 인격과 관계를 맺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는 또 다른 인격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한다.

IV. 아내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다 — 롬 7:4하.

(롬 7:4하)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A. 우리가 부활 안에 있고 하나님을 향해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다.

B. 거듭난 사람으로서 아내인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C. 여기서 우리는 죽음과 하나님 사이의 뚜렷한 대조를 본다.

D.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열매로서 산출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따라서 우리의 온 존재와 모든 행동은 반드시 살아 계신 하나님이어야 한다.

2.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넘쳐흐르시게 하여 하나님을 산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열매로 갖게 되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다.

V. 우리는 열매여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아내이자 새사람인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 롬 7:6.

(롬 7:6)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열매여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낱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깁니다.

A. 율법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하나님을 정의한다 — 레 19:2.

(레 19: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곧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B. 이에 따라 율법은 타락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규정을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율법은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고 사람을 이끌어 죄를 알게 한다 — 롬 3:20, 4:15, 5:20.

(롬 3:20)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이며, 율법으로는 죄를 분명히 알 뿐이기 때문입니다.

(롬 4:15) 왜냐하면 율법이 진노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위법도 없습니다.

(롬 5: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것은

C. 이와 같이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굴복된다 — 롬 3:19.

(롬 3:19)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는 것이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VI. 아내로서 우리는 또한 문자의 낱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 — 롬 7:6.

(롬 7:6)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열매여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낱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깁니다.

A.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위한 생명의 새로움을 보고, 7장 6절에서는 우리의 봉사 위한 영의 새로움을 본다.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생명의 새로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시됨으로 산출된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행함을 위한 것이다.

2. 영의 새로움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산출된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3. 영의 새로움과 생명의 새로움은 둘 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로 온 것이다.

B. 생명의 새로움과 영의 새로움은 둘 다 그 영과 관련된다.

1. 생명의 새로움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자신과 관련된다 — 고전 15:45하.
(고전 15:45하)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2. '영의 새로움'이라는 표현에서 '영'은 그 영이신 주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의 거듭난 영을 가리킨다 — 딤후 4:22.

(딤후 4: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a. 우리가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 b. 우리의 거듭난 영과 관련된 모든 것이 새롭다.
 - c. 우리의 거듭난 영은 새로움의 근원이다.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 d.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롭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새로움만 있다.
- C. 우리는 새사람인 우리가 옛사람의 율법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새 남편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고 영의 새로움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성경: 롬 8:9-11, 28-29

(롬 8:9-11)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롬 8:28-29)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I.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의 초점과 우주의 중심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II. 로마서 8장은 교리에 대한 장이 아니라, 체험에 대한 장이다. 이 장은 삼일성의 교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체험 가운데 계신 삼일성에 대해 말한다.

III.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영의 법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의 생활을 위해 믿는 이들에게 신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 2, 6, 10-11, 26-29절.

(롬 8: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롬 8:10-1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롬 8:26-29)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중보기도 하십니다. (27)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그 영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2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IV. 로마서 8장은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에 관한 것이다. 이 영은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완전히 똑같이 만드실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다.

V.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 롬 8:9상.

(롬 8:9상)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A. 로마서 8장은 아버지(15절)와 아들(3, 29, 32절)과 영(9, 11, 13-14, 16, 23, 26절)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된 사람들로 우리 안으로 어떻게 분배하시는지(2, 6, 10-11절)를 밝혀 준다. 이러한 분배는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로 만들어(14-15, 19, 23, 29, 17절)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12:4-5).

(롬 8:15)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적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롬 8:3)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롬 8: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
 셧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롬 8:32)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을 우리에게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롬 8:9)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롬 8: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
 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롬 8:13-14)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14) 왜냐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롬 8: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롬 8:23)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롬 8:26)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중보기도 하십니다.
 (롬 8: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롬 8: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롬 8:19)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롬 8:23)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롬 8:17) 자녀들이라든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만일 참으로 그
 령에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롬 12:4-5)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 B.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우리의 체험에서 우
 리는 영 안에 있고 더 이상 육체 안에 있지 않다.
- C.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삼일 하나님은 그 영으로서 우리의 영에서부터(롬 8:10) 우리 생각으로 대표
 되는 우리 혼 안으로(6절) 확장되실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우리의 죽을 몸에게까지 생명을 주실 것이다(11절).
 (롬 8: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롬 8: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
 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VI.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 롬 8:9하.

(롬 8:9)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
 니다.

- A.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그분의 영께 달린 문제임을 보여 준다.
- B.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혹은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그분께 연결되고 그분께 속할 길
 이 없을 것이다.
- C.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영이시며(고후 3:17),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고(딤후 4:22) 우리와 한 영이시다
 (고전 6:17).
 (고후 3: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딤후 4: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D.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두 영이 아니라 한 영이다.

E. 바울은 이 명칭들을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내주하시는 생명의 영께서 삼일 하나님 전체를 포함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롬 8: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F. 로마서 8장 9절에는 하나님과 그 영과 그리스도가 모두 언급되어 있다.

(롬 8:9)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G. 우리 안에는 세 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곧 삼일 하나님의 삼일의 영께서 계신다 — 요 4:24, 고후 3:17, 롬 8:11.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고후 3: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롬 8: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VII.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 롬 8:10.

(롬 8: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A.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가 로마서에서 핵심 요점이다.

1. 로마서 3장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계신다.

2. 로마서 4장에서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 계신다.

3.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4.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이다.

B.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안의 우리 영은 죽어 있었고, 밖의 우리 몸은 살아 있었다.

C.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비록 밖의 우리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안의 우리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이다.

D.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서 우리 안으로 오실 때 우리 몸의 죽어 있는 상태가 드러난다.

E. 그 영이신 그리스도는 의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면서 생명을 가져오신다. 그러나 사탄은 죄로서 우리의 육체 안에 있으면서 죽음을 가져온다.

F.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죽음과 함께 사람의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죽었고 무능하게 되었다.

1. 비록 하나님은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셨지만(롬 8:3), 이 죄는 타락한 사람의 몸에서 근절되거나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롬 8:3)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2. 그러므로 우리 몸은 여전히 죽어 있다.

G. 로마서 8장 10절에서 영은 사람의 타락한 몸과 대조되는 거듭난 사람의 영이다.

(롬 8: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H. 영이 의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우리 사람의 영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I. 우리의 영은 거듭나 살아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생명이 되었다.

1.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신성한 생명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영 안에 오셔서 우리 영과 연합하셨다.

2. 따라서 이 두 영은 한 영이 되었다 — 고전 6:17.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J.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통해 우리는 의를 받았다. 이 의는 우리의 존재 안으로, 곧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 오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 롬 8:10.

(롬 8: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1. 이 의는 생명을 가져온다 — 롬 5:18, 21.

(롬 5:18) 그러므로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같이,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었습니다.

(롬 5: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이제 우리의 영은 살아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이다.

VIII.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 롬 8:11.

(롬 8: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A. 이 절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 전체, 곧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과 ‘그리스도’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본다.

B.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이 보여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일어날 뿐 아니라 둘레까지 곧 우리 온 존재에까지 이른다.

C.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은 신성한 치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고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 온 존재를 적시시도록 허락해 드린 결과를 가리킨다.

D. 이런 식으로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 죽어 가는 몸에 생명을 주시어, 이 몸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뜻을 수행하도록 활기 있게 하신다.